

수령의 인간화: 김정은 시대의 수령관

‘신격’화된 수령에서 ‘인민’ 속의 수령으로

정영철*

북한에서 수령은 위대한 인간이자 동시에 인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인민 속의 수령을 표방하고 있으며, 수령과 인민은 떼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진 혈연의 공동체로 주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신격화’된 존재로서 인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부여된 호칭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갖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수령’ 김정은은 이와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탈하고, 격이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그에 대한 호칭 역시 공식적인 직함을 중심으로 수식어로만 ‘경애하는’을 붙이고 있다.

이는 단지 김정은의 리더십 문제로만 해석되기에는 부족하다. 2019년 김정은의 서한에 담겼던 수령에 대한 ‘위대성’ 교양의 요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이 주장되었다. 즉, 수령에 대한 신비화를 걷어 내고 수령의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와도 관련이 있는데, 곧 수령의 인간화를 의미했다. 인민과 멀리 떨어진 수령이 아니라 ‘인민 속의 수령’을 주장했던 것이다.

수령제는 북한을 지탱해 왔던 핵심 제도이자, 사상적 관점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수령에 대한 신비화를 걷어내고 ‘수령의 인간화’를 주창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리더십을 상호관계 혹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제어: 수령, 김정은, 신비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성

* 서강대학교 부교수.

1. 들어가며

2019년 3월 6일, 김정은은 제2차 전국 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 한 편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무려 18년 만에 열린 이 대회에 보낸 김정은의 서한 내용 중에 특별한 대목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수령’에 대한 교양과 관련하여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다소 길지만 서한에 강조한 수령에 대한 위대성 교양에 대해 김정은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대성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는것입니다. 만일 위대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품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령은 인간과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는 위대한 인간이고崇高한 뜻과 정으로 인민들을 이끄는 위대한 동지입니다.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우러나오는것입니다. 수령의 사상리론도 인민들을 존엄높이 잘살게 하기 위한 인민적인 혁명학설이고 수령의 령도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힘을 발동시키는 인민적령도이며 수령의 품모도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인민적품모라는것을 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성교양의 내용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관통시켜야 합니다.¹⁾(고딕체는 필자 강조)

1) 김정은,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김정은위원장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2019년 3월 6일),” 『로동신문』, 2019년 3월 9일.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수령의 신비화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수령 역시 ‘인민’에게 멸사복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북한의 ‘수령’은 인민과는 구분되는 위대한 인간이었고, 신격화된 존재였다. 물론, 북한의 수령‘론’에 의하면 수령은 결코 인민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북한의 ‘혁명적 수령론’에 의하면, 수령은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이자, 고상한 품격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탁월한 사상이론가라 할 수 있다.²⁾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수령은 ‘위대한’ 령도자로서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인 것이다.³⁾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은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사상적 관점이다. 동시에, ‘수령’은 단지 위대한 인간을 넘어서 실제로는 인민과 동떨어진 ‘신격화’의 대상이 되었다. 호칭부터 ‘위대한 수령’ 혹은 ‘위대한 장군님’으로 불렸으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지만 동시에 인민과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신비화된 대상으로서 멀리 떨어진 존재로 위치되었다. 실제, 1974년 김정일이 확립했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따르면, 충실성의 4대 원칙으로서 수령에 대한 ‘신격화,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화’ 등을 들고

2) 북한은 일관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표현한다. ‘수령론’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한국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혁명적 ‘수령론’과 ‘수령관’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연구』(서울: 선인, 2005), 제2장 2절 참조.

3)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정식화된 명제라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수령’의 철학적, 정치적 의미를 1986년 김정일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규정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11』,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있다.⁴⁾ 따라서 김정은의 위의 발언은 결국, 지금까지 수령에 대한 충성(혹은 충실성)에 의해 정당화된 ‘신비화’된 수령을 거부하고, 인민 속의 수령으로서 제자리를 찾고자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신비화된 수령을 거부하고 ‘인민’ 속의 수령을 호명하는 것은 곧 김정은 시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세상에 서 가장 귀하고 힘 있는 존재로서 인민을 호명한 상황에서 수령이 더 이상 신비화되는 것은 모순이었고, 수령 역시 인민들 속에서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인민’ 속의 수령이 되어야 했다. 이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나 그에 대한 호칭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령 ‘신비화’를 넘어서, 인민적인 스타일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과 객관적인 호칭의 사용은 수령을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 느끼게끔 할 터였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의 달라진 ‘수령관’을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상적 지평과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호칭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결코 ‘수령’의 존재를 약화하거나, 기존 북한의 수령 체제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의 구축이라는 전략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 인민대중제일주의: 수령관의 관점에서 재해석

1)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탄생과 배경

김정은의 등장은 이전까지의 선군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초기,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모란봉 악단의 파격적인 공연, 아내 리설주와의 동행과 공개 행사에의 참여 등은 단순한 ‘문화적 충격요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변용’의 기획이자⁵⁾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문화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역시 김정일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김정일의 장례 이후, 김정은의 본격적인 현지지도가 이루어진 2012년 5월 ‘만경대 유희장’을 찾은 김정은은 중절모자에 겹옷의 단추를 모두 풀어헤친 편안한 복장을 한 채로였고, 그 자리에서 길가에 자라난 잡풀을 뽑으며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가, 유희장 관리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일터에 대한 애착,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내었다.⁶⁾

사실상 그의 첫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현지지도’ 혹은 방문의 자리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를 강조하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5)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2017)에서는 이를 북한의 ‘문화정치’의 기획으로 분석한다.

6) 당시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 모습을 2012년 5월 9일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로동신문』에는 5월 10일에 보도되었다. 이로 미루어 실제 방문은 8일로 추정된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유희장을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5월 10일.

사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총체적 위기였고, 이를 헤쳐가기 위한 ‘선군정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 있었다. 김정은의 승계 시기에 강조하던 세도와 관료주의의 비판은 일반적인 계승의 시기에 북한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던 것이었지만, 특수주의에 대한 비판은 조금 더 주목을 요한다. 즉, 선군정치 시기, 일부 단위와 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인민 경제와 유리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⁷⁾ 특히, 이러한 〈특수〉에 대한 비판은 김정은의 발언에서만 아니라 『근로자』에서도 ‘검찰소 소장’ 박학남의 글을 통해 특수에 대한 법적 처벌을 적용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세도, 관료주의, 그리고 특수주의에 대한 비판 등은 김정일이 남겨놓은 ‘선군정치’의 의도치 않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초기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유산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당과 국가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적 유산을 새롭게 정식화하고, 간부·일군들의 사상적 무장을 다그치는 것이었다. 초기 등장했던 ‘김정일

7) 김정은의 발언에서 〈특수〉를 언급한 것은 여러 차례 있다. 첫 등장은 2012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에서였고, 이후 2014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2014년 2월 25일),”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이었으며,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6-7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에서도 〈특수〉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수행하였다.

8) 박학남,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일해나가야 한다,” 『근로자』 제11호(2019).

애국주의'가 그 바탕에 숭고한 '인민관'이 있다고 주장한 뒤,⁹⁾ 2013년 제4차 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선언하게 된다.¹⁰⁾ 사실, 김정은의 연설과 담화, 서한 등을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식화 이전부터 ‘인민’을 유달리 강조해 왔다. 그리고 2013년의 정식화 이후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지금까지의 ‘선군’에서 ‘인민’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9년 정도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의 국면, 국가 체제의 정상화에 대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미, 둘째, 선군의 시대를 마감하고 ‘선군 이후’의 시기를 ‘인민’의 시대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사상적 정립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독자적인 사상적 좌표로서 ‘인민’을 호명하고, 그에 따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식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선군’의 정리와 새로운 시대의 사상적 좌표의 마련,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인민생활 향상과 김정은 시대의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혁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모란봉 악단의 출현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혁신의 모범’을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¹¹⁾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 새

9)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7월 26일),” 『로동신문』, 2012년 8월 3일.

10) 김정은,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연설, 2013년 1월 29일),”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11) 김정은은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 대해 “모란봉악단공연을 중시하는 것은 공연을 통하여 모든 부문들에서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스고 혁신적인

로운 사상적 좌표와 함께 기존의 ‘인민’위에 군림하던 기득권에 대한 정리, 특수주의에 대한 정리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2018~2019년의 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를 통해 김정일의 ‘미완의 안보’ 유산을 정리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 매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¹²⁾ 비록, 이 목표가 ‘하노이 실패’로 인해 완성되지 못했지만,¹³⁾金正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목표는 동일하지만 수단은 수정된 형태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자기 사업에서 혁신할 방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金正은,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창립 60돐을 맞은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2012년 12월 1일), 『근로자』 제4호(2013), 5.

12) 2018년에 등장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3년의 병진노선에 대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지금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정리하였다. 이제 선군은 ‘승리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병진노선’ 역시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바야흐로金正은의 ‘인민의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4월 20일에 열린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金正은은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궁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2018년 4월 20일),”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13) ‘하노이 실패’와 동시에 당시 남북의 정상회담의 불이행은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자면,金正은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위대한’ 혹은 ‘경애하는’ 영도자의 기나긴 기차 여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평양의 10만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내주었던 남북의 정상회담과 ‘남한’ 대통령의 공개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그 성과가 아무런 결실 없이 허물어진 사건 등은 인민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이른바 ‘수령의 무요류성’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金正은에게 더더욱 ‘인민 친화적’이고, ‘인민에게 헌신’적인 모습의 지도자로 다가서는 동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였다.

2)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의 제도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등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선군의 시대에서 선민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을 선언하고 당의 규약에 명시하였다.¹⁴⁾ 이와 함께, 선군의 시대가 아닌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규정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의 지금까지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선전되었다.¹⁵⁾

사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선군 시대를 넘어선 김정은 시대의 ‘시대 규정’이었지만, 동시에 이는 국가의 정상화와 정상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¹⁶⁾ 국가제일주의라는 호명에서 보이듯이, 김정은의 집권은 ‘선군 시대’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서 과거 정상적이었던 김일성 시대와 유사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결국 김정은 초기 민족주의와 더불어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제로 동원되었으며,¹⁷⁾ ‘인민대중제일주의’

14) “제8차 당대회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년 1월 10일.

15) 김철룡, “론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로동신문』, 2021년 2월 13일.

16)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국가 정상화, 국가 발전의 이념으로의 해석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17)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주체, 우리 식, 우리민족제일주

가 이러한 정당성 정치의 핵심으로 이론화되어 갔다.¹⁸⁾ 그리고 이러한 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맞는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선언되었다. 이제는 하나의 이념적 좌표로 설정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선군정치’를 대신하는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구호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선군 시대에 과도하게 팽창된 군부의 기득권을 정상적인 국가 발전 시대의 ‘군부’로 되돌려야 했고, 수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위치지어야 했다. 군부에 대한 초기의 과감한 숙청, 군부 기득권의 축소 내지 내각으로의 이전(spin-off 정책 포함), 군에 대해 당의 군대이자 동시에 ‘인민의 군대’로서 선군이 아닌 ‘군이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에서 나오듯이, 과도한 사회적 발언력을 정상화해야 했다. 이미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군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절대적인 양에서도,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면에서도 대폭 감소되었다.¹⁹⁾ 그간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군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소멸되었고, 노동계급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최고의 칭호가 주어졌다.²⁰⁾ 다시

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2017);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2019).

18) 이경수, “김정은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과 정당성 구축,” 『한국과국제정치』 제41권 2호(2025).

19) 8차 당대회 당시 군의 대표자는 약 8.2%였다. 이 수치는 7차 당대회에서 약 1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반면, 현장의 핵심당원은 7차 당대회 당시 21.4%에서 8차 당대회에서는 29.1%로 높아졌다. 또한, 국가행정경제일군을 대표하는 대표자 수는 7차 당대회 11.5%에서 8차 당대회 16.5%로 증가하였다. 정영철,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자료집(2021), 7.

금 군이 아니라 로동계급이 최정상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경제에서도 국방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천명했지만, 실질적인 국방비는 15.8~16%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건설과 과학기술, 농업 등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한 분야에 국가 자원의 분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²¹⁾ 그리고 군은 다시금 이러한 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언제든지 건설 현장에 투입 가능한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었다.²²⁾

김정은 시기의 국가 정상화는 결국 그간 선군정치의 종언, 당 및 국가의 회의 체계의 정상적인 복원,²³⁾ 그리고 인민생활을 위한 경제건설에 대한 총력 대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북한에서 로동계급을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으로 호칭한 것은 문헌상 확인되는 것은 "전국의 로동계급에서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15년 12월 4일에서이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켈기모임 참가자 일동으로 발표된 호소문에서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이 2015년 김종태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 이름도 빛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 『우리민족끼리』, 2022년 5월 1일). 이후, 당 제7차 대회에서도 언급되었고, 2016년 6월에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은 주체혁명 의 핵심부대"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정치법률연구』 제2호(2016)).

21)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추가적인 비용 없이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실제 자연재해에 따른 급박한 건설 현장,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군 건설 인력 투입만이 아니라, 지방공장 건설 등 북한의 국가적 목표에 중대한 정책적 건설 지점에 군이 조직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지방건설에는 124연대가 조직되어 파견되고 있다. 124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대해서는 김일환, "124연대를 아십니까," 『한국농정신문』, 2026년 2월 3일 참고.

23) 김종수·김상범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회의가 정례화되었을 뿐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종수·김상범,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국가안보와전략』 제21권 1호(2021).

3)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인민’ 속의 수령

김정은의 등장 이후, 그가 보여준 통치의 스타일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그에 대한 호명은 또 한 명의 ‘위대한 수령’이었지만, 앞선 김일성, 김정일과는 차이가 있었다. 백두의 혈통과 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²⁴⁾ 동시에 이전의 김일성-김정일과는 다른 그의 인민 속에서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물론,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으로 분석되었지만, 이와는 다른 차별성도 관찰되었다. 김종수·김상범은 이를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으로 묘사하고 있다.²⁵⁾ 실제, 김정은의 대중 앞에서의 모습은 과거 ‘강인하고, 무오류’의 수령으로 묘사되던 김일성-김정일과는 여러 측면에서 구별된다.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처음 그가 등장했을 때의 무언가 어색함과 낯섬, 인민 앞에서의 울먹이는 모습,²⁶⁾ 현철해의 죽음 이후에 그의 무

24) 물론,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민 속에서 혹은 ‘고난의 행군’의 과정에서 인민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 출생 및 출생지에 대해서는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서울: 한울애플러스, 2025), 제1장 2절 참고.

25) 김종수·김상범,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195.

26) 대표적으로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의 연설이었다. 이날 김정은은 연설 도중 인민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눈물을 보였고, 잠시나마 연설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의 호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신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자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2017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7년 1월 1일.

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고, 사진을 보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위대한 수령’을 묘사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정은의 ‘수령’으로서의 위대함은 과거와 동일한 것이었지만, 그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수령의 신비화에 대한 비판, 수령의 인민성을 강조했던 것을 연상시키면, ‘수령’ 김정은의 인민적인 모습이 아무런 여과 없이 인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 속에서 ‘수령’ 역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앞서서 구현하는 ‘인민의 수령’임을 이미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이나 열병식 등에서 과거와 달리 인민들에게 스스럼없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 등은 그간 북한에서 관찰했던 수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친인민적이고, 친현실성의 모습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연결되면서 인민들 속에서의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며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이념”이라는 규정과 함께,²⁸⁾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리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치”이며,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

2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헌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5월 20일; 정영철,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2호(2024).

28)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평양: 평양출판사, 2016), 3.

에 대한 멸사복무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시대어”로 규정하고 있다.²⁹⁾ 바로, 여기에서 인민이 수령에게 참다운 충실성을 보여야 한다면, 수령은 인민에게 ‘멸사복무’ 해야 한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수령은 ‘인민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민은 수령 없이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수령’은 인민에게 멸사복무 해야 하는 존재로서, 그 역시 인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시대의 ‘당’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어머니 당’을 넘어서, 인민의 ‘심부름꾼’ 당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³⁰⁾

물론, 북한에서 수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거나 낯선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김일성에서부터 이야기되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이념적인 좌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서도, 선군사상에서도 지속되고 있었고, 김일성-김정일에게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는 이민위천의 색다른 점은 ‘수령’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앞선 선대 ‘수령’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심으로, 인민을 향하는 멸사복무가 더욱 강조되고, 관료 및 일군들에게도 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강조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넘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수령 역시 이러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위한 위대한 영도자로서 위치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29)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로동신문』, 2020년 6월 2일.

30) “론설: 우리 당을 인민의 심부름꾼당으로 건설하여야 할 필요성,” 『로동신문』, 2021년 8월 8일. 지난 시기 간부와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아예 당을 ‘심부름꾼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인민’ 속의 수령, 그리고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

1) 김정은 호칭의 변화와 의미

처음 김정은의 등장에 따른 그의 호칭은 ‘대장’ 혹은 ‘원수’였다. 2010년 당대표자회의에서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받은 그는, 그 이전에 이미 김정일의 입을 빌려 ‘대장’으로서 호명되고 있었다.³¹⁾ 이후, ‘원수’로 호명되었고, 지금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로 호명되고 있다. 과거 김일성의 호칭으로서 ‘위대한 수령’이나 김정일의 ‘위대한 장군님’의 호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³²⁾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수령’ 혹은 ‘장군’의 호칭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령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러한 호칭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령도자’의 호칭이 최고지도자를 향한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김정은 시대

31)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계승이 완결된 시점에서 2012년 북한의 『근로자』 제3호(2012)에서는 김정일의 김정은에 대한 소위 ‘위인적 풍모’에 대한 평가가 정리되어 실려 있다. 이때 대표적으로 김정은에게 붙인 호칭은 ‘대장’이었다. 특히 그를 직접적인 후계자로 언급할 때에는 <김정은대장은 나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지금 나의 사업을 많이 보좌해주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풍모에 대하여 하신 말씀(발췌),” 『근로자』 제3호(2012), 3.

32) 여기서 김일성-김정일의 호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불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서 수령의 호칭은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에서 말하는 지위와 역할로서 ‘수령’이라는 의미와 함께 김일성 개인에 대한 존칭의 의미로서 ‘수령’을 동시에 담고 있다. 반면,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에서의 ‘수령’과 함께 일상적인 존칭어로서 ‘장군’이라는 호칭이 쓰이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사상이론적으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 수령과 장군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만 사용되는 ‘영원한’ 호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일성에게 영원한 ‘주석’으로 호칭하면서 국가의 최고직위를 사실상 국방위원장으로 한 것, 그리고 김정일 사망 이후, 그에게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면서 결국에는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위원회를 새로 조직한 것은 행정부 내에서의 권력 지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수령이나 장군은 존칭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일상적 호칭에서부터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붙이는 호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초기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대장’ 혹은 ‘원수님’ 등의 호칭을 붙였다.³³⁾ 그리고 제4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제1비서’를 신설하여 취임하였고, 이때부터 제1비서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이후 2016년 김정일에게 ‘영원한 총비서’를 부여하고, 자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최고 직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다시금 ‘총비서’로 환원하였다.³⁴⁾ 일반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에게

33) 초기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대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계승 여부가 논란이었을 때 평양의 한 거리에서는 ‘수령복’, ‘장군복’, ‘대장복’이라는 비석이 관찰되었다. “김정은 대장 작년에 결혼했다: 북 후계작업 순조롭게 진행. 보통강여관에 대장복 비석,” 『통일뉴스』, 2011년 5월 30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44>.

34) 김정은이 영원한 총비서로 김정일을 추대한 이후, 당 위원장을 신설하였다가 다시금 총비서로 직제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왔었다. 총비서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보았을 때, 김정은의 권위와 권력의 강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위원장’ 직책이 너무 많아 김정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비서? 위원장? 김정은 직책은 대체 뭐가요?” YTN, 2021년 1월 14일, https://www.ytn.co.kr/_ln/0134_202101141050018925.

부여하는 호칭은 공식적인 칭호와 달리 평시에 존경을 의미하는 ‘수령’과 ‘장군’이었지만, 김정은에는 이러한 칭호를 대신하여 주로 당의 직책 혹은 국가의 공식 직책으로 호명하고 있다. 지금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에서 ‘경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최고지도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호칭을 제외하고는 김정은에게도 최고지도자의 수식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수령의 인간화’라는 점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아무런 호칭 없이 당 및 국가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 혹은 애초부터 권위를 부여하는 존칭을 삭제하는 것은 보다 친밀한 느낌과 ‘인민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당 및 국가의 정상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호칭은 정상적인 당과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요란한 호칭을 삭제하고, 간단명료한 당과 국가의 직책을 호명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더 긍정적인 것이다. 셋째로는 초기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달라진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즉, 과거의 권위적이고 선군의 경직성을 털어내고 혁신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서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북한 사회 역시 문화적으로 외부의 문화적 침습의 영향,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달라진 현실 속에서 과거의 흔적보다는 현실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데 ‘수령’의 호칭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35) 김정은 등장 이후의 북한 사회의 문화적 변용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참고.

〈그림 1〉 신천군 복우농장 새집들이 장면



자료: 『로동신문』, 2026년 1월 28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에 대한 호칭이 대중적으로 ‘수령’이나 ‘장군’등의 존칭이 삭제되었다고 하여서, 김정은의 권위가 과거 김일성-김정일과 비교하여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역시 북한 사회에서 ‘수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³⁶⁾ 최근 농촌의 살림집 건설과 준공식 등에서는 현지에서의 구호 속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태양’, ‘장군’ 등의 표현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다.³⁷⁾

36) 김정은에게 명시적으로 수령이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로동신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경으로 보인다.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론설의 형태로 나온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위업을 필승불패이다”에서이다. 여기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명시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3일.

37) 2024~2025년 들어 거의 매일같이 『로동신문』에는 지방의 농촌 살림집 준공 및 입사증 전달식을 보도하고 있다. 이 사진들에서 보이는 김정은 찬양 구호에는 ‘김정은 장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로 미루어,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존칭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존칭어로는 ‘장군’ 등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식 매체에서 김정은에 대한 존칭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18년 발행된 책의 제목은 『인민의 태양』(평양: 평양출판사, 2018)이었고, 이어, 2022년에는 한영수·홍범식의 『인민의 태양 김정

이는 공식 매체에서는 공식적인 직함을 통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대한’ 영도자에 부합하는 존칭어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존칭어가 얼마나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김정은의 존칭과 그의 권위는 공식 매체에서의 존칭어 사용과는 별개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대면접촉의 지도자

김정은의 이러한 친‘인민’적인 행보는 호칭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 스타일에서도 두드러진다. 과거 김일성이 현지도에서 보여주었던 소탈했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과감한 스킨십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첫 등장에서부터 서민적인 인상을 보여주었다면, 재해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모습도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감한 스킨십의 등장이다. 주민들, 병사들, 어린이들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의 스킨십을 보여주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³⁸⁾ 둘째, 자연 재해 현장에서 최고지도자 직접 위험한 현장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면서도, 현장에는 정리

은 찬가』(평양: 평양출판사, 2022)가 출간되었다. 내부적으로 김정은을 가리키는 존칭어로 장군, 태양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38) 김정은의 초기 섬 방어부대 방문이나 어린이집 곧 유치원 등의 방문, 일반 주민들과의 만남 등에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또한, 평양 무궤도열차 시승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군인들과의 접촉, 수재민들, 건설자들과의 접촉에서도 이러한 스킨십의 모습은 지속되고 있다.

가 끝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 황해북도 은파군의 자연재해 현장, 강원도 김화군 재해 현장, 평안남도 안식간석지 현장, 그리고 평안북도의 신의주 지역의 수해 현장 등에 대한 현지방문 및 현지에서의 직접 지도 등은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정책 실행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은파군의 자연재해 현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SUV 차량을 운전해서 재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하였다.³⁹⁾ 셋째, 대중적인 행사와 연설 등을 즐기는 모습 동시에 대중적인 공개 행사에서 인민들과 함께 이를 즐기는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거대한 정치행사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의 착공 및 준공식예의 참여와 연설, 그리고 과거 평안북도 북부 지구의 수해 현장에서는 현장 지도부를 구성하는 모습 등은 평양 중심의 정치 현장에 익숙한 북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솔선해서 보여주는 것과 함께 언제든지 인민들과 함께하는 수령의 이미지를 만 들어내고 있다. 더구나 숨기고 싶은 치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를 ‘엄청나게 미달’한 것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⁴⁰⁾ 초기 아파트 건

39)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8월 황해도 은파군에 수해가 발생했고, 여기에 김정은이 직접 SUV 차량을 운전해서 다녀가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또한, 현장은 한 달 만에 다시 찾으면서 내의 차림으로 수해복구를 점검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北 폭우로 은파군 제방 붕괴 … 김정은은 수해 현장 시찰,” KBS 뉴스, 2020년 8월 7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12116>.

40)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2021년 1월 5일),” 『로동신문』, 2021년 1월 6일.

설 도중의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관련자들을 보내 현장에서 ‘인민’들 앞에서 사죄를 하도록 하였고,⁴¹⁾ 북한 관광 도중에 사고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사망하자 이를 직접 평양역까지 나와 시신을 중국으로 이동시키는 모습 등이 공개되었다.⁴²⁾ 이러한 모습은 김정인의 리더십 스타일의 하나로서 솔직성과 공개성, 통속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⁴³⁾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북한 내부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직접 약국을 방문한 모습은 ‘위기 속에서 인민과 함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모습은 김정인 개인의 통치 스타일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이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까지 규정한 것은 그의 수령관이 과거의 딱딱했던 수령관에서의 변화를 표현한 것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수령관의 사상적 입장의 변화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표현대로 ‘방법에서의 창조성’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⁴⁴⁾ 그

41) 2014년 5월 13일에 평양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북한은 5월 18일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책임자 및 일군들을 보내 사과하였다. 조준형,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기술자 4명 총살,” 『연합뉴스』, 2014년 5월 29일.

42) “김정은, 中관광객 사망 사고 새벽 위문 방문,” 『통일뉴스』, 2018년 4월 24일; “김정은, 평양역에서 ‘유커 시신’ 후송 열차 직접 전송,” 『서울신문』, 2018년 4월 26일.

43) 박계리, “김정은 시대 문화정치와 통속성,” 『통일과평화』 제15권 2호(2023); Atsuhito Isozaki, “Characteristics of Kim Jong-un’s leadership: Analyzing the tone of official North Korean medi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9, no. 1 (2020).

44) 북한의 ‘유일사상’을 대하는 입장은 ‘사상의 창조성은 허용할 수 없지만, 방법

럼에도 이러한 변화가 앞선 ‘수령’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즉, 김정은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의 핵심 내용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의 변화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과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난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즉, 아내 리설주의 등장 및 정상회담에의 참여 등은 이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역시 개인적인 특징을 넘어 ‘인민 대중제일주의’에서의 수령의 활동과 그 리더십의 스타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김정은 시대의 변화한 현실, 국가적 목표,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 등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수령’의 인간화와 ‘인격적 리더십’의 형성과 공고화

김정은의 호칭, 그리고 통치 스타일의 변화는 개인적인 특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 리더십을 개인적 특성으로만 환원하는 것은 리더십을

에서의 창조성은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일,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 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8월2일),” 『김정일선집 6』, 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 45) 물론, 최근에는 리설주의 등장보다는 그의 딸 김주애의 등장이 보다 더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를 ‘후계자’로 잠정 사실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인민’적 수령으로서의 행보 속에서 다른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러싼 사회 구조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반쪽의 분석으로 그치고 만다. 리더십은 번즈(Burns)가 지정한 대로 ‘상호작용’ 혹은 ‘상호관계’의 개념이며,⁴⁶⁾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앞선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리더십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즉, 신격화된 수령이 아니라 ‘인간화된 수령’의 리더십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초기 김정은의 파격적인 행보와 더불어, 인민들과의 스스럼없는 스킵, 그리고 군부 및 기득권 세력의 숙청의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키워드는 바로 ‘인민’이었다.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내건 조건에서 인민의 이익, 인민의 염원 등을 대변하는 모습 역시 김정은을 인민 속의 지도자로 이미지화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제창되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김정은에게도 ‘수령’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부여되었다. 김정은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수령’ 호칭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로동신문』을 통해서는 2020년 10월 3일 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를 필두로 하여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⁴⁷⁾ 이는 이미

46)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James McGregor Burns),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조 중빈 옮김(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47) 김정은을 명시적으로 ‘수령’으로 호칭하고 있는 경우는 대강 다음과 같다. 출처는 모두 『로동신문』이다. 홍진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의 김정은 동지>,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과 같은 수령숭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2020년 6월 12일); 승철진,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 백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라는 기사에서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였기에(2021년 6월 17일)”;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의 근본핵 혁명적

김정은이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별다른 존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수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⁸⁾

북한에서 수령은 위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권력으로만 환원되지 않은 ‘도전 불가능한’ 지도자이다. 따라서 제도적 리더십을 넘어 수령 개인에게 카리스마가 부여되는 ‘인격적 리더십’이 결합되어야 한다.⁴⁹⁾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의 이면에는 이러한 인격적 리더십

수령관”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 위대한 수령이시다(2021년 7월 8일)”; “론설: 우리의 당기를 존엄과 승리, 전진의 기치로 영원불멸할 것이다(2021년 10월 6일)”에서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설: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거룩한 풍모를 지니고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2021년 10월 10일)” 등으로 나왔고, 이 외에도 최근에는 2024년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에서 “탁월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2024년 10월 21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8) 특징적인 것은 『로동신문』만으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이 2020년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2019년 이후, 북미 교착과 더불어 남북관계 교착, 그리고 국제적인 제재의 지속, 자연재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때라는 점이다. 아마, 이러한 위기의 국면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위기극복’ 혹은 위기의 과정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49) 북한의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수령의 리더십을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역시 카리스마 리더십의 유전 불가능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영철은 이러한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개인화되고 인격화된 것으로서 ‘인격적 리더십’과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제도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참조.

이 완성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초기, 군부의 숙청, 장성택 일파의 숙청, 그리고 위기의 극복의 과정에서 김정은은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권력자, 지도자이자 동시에 카리스마를 갖추어가는 ‘인격적 리더십’의 지도자가 되어갔던 것이다. 이 결과는 곧바로 당의 사상과 제도에서도 뒷받침되었다. 7차 당대회가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라면, 8차 당대회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로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가 개막되었고, 김정은 시대의 정치방식이자 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열어젖혔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김정은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계승이 1974년 후계자로의 공식 승인된 이후, 약 20여 년간에 걸친 검증과 지도체제의 구축을 통해 1994년 이후 본격화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짧은 계승의 시간을 보낸 김정은은 최고지도자의 권력승계 이후 일종의 ‘수령’의 지위에 대한 검증과 자신의 영도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문헌을 살펴보면, 김정은에 대한 숭배가 과거 김일성 및 김정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모습이지만, 김정은을 카리스마를 갖춘 ‘위대한 령도자’로 숭배하는 모습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나 인간적인 ‘수령’으로서의 모습은 과거와는 다르다. 앞서도 말했듯이, 현철해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든지, 김영남 장례식에서는 앞서나가지 않고 일반 조문객들처럼 묵묵히 뒤를 따르는 모습⁵⁰⁾ 등은 과거와 구분되는 수령의 모습인 것

50) 김영남의 장례식에서는 오히려 총리 박태성이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그로부터 한 발 뒤떨어져 이를 지켜보고,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것을 ‘수령’을 중심에 세우는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다. 이 역시 수령의 ‘인간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북한에서 수령은 위대한 인간이자 동시에 인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인민 속의 수령을 표방하고 있으며, 수령과 인민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진 혈연의 공동체로 주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신격화’된 존재로서 인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부여된 호칭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갖춘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수령’ 김정은은 이와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탈하고, 격이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그에 대한 호칭 역시 공식적인 직함을 중심으로 수식어로만 ‘경애하는’으로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은 북한의 수령 중심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숭배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의 ‘선군’의 시대를 넘어서는 ‘인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호칭과 리더십의 스타일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수령의 신격화’에서 탈피하여 ‘수령의 인간화’를 통한 인민적 리더십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수령의 위대성, 인민성이 훼손되거나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金正은의 서한에서 나타나듯이, 수령의 위대성이 ‘신비화’되어 진행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화’되어 진행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고, 나아가 인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결집된 힘이 지금의 북한에서는 더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김일성 광장에서의 그의 눈물이 전체 광장을 울음바다로 만들면서 일종의 ‘감성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은 오히려 수령과 인민의 장벽 없는 결합을 만들어낸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정은에게도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부여되고 ‘수령’ 김정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의 9차 당대회는 조선로동당이 ‘김정은의 당’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김정은에 대한 ‘수령’ 호칭이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9차 당대회의 대중적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주체의 태양’ 혹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에 대한 호칭과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앞선 최고지도자들과 구분된다고 하여도, 그의 ‘수령’이라는 지위와 역할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의 변화는 내용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의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든, 아니면 북한 사회의 변화된 힘의 결과인지는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리더십이 상호작용 혹은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사회의 현재 요구되는 리더십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수령의 인간화’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래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

■ 투고: 2026.02.05. / 수정: 2026.03.30. / 채택: 2026.04.02.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정일,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8월 2일).” 『김정일선집 6』,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11』, 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 평양: 평양출판사, 2016.
- 평양출판사, 『인민의 태양』, 평양: 평양출판사, 2018.
- 한영수·홍범식, 『인민의 태양 김정은 찬가』, 평양: 평양출판사, 2022.

2) 논문

- 김정은,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창립 60돐을 맞은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2012년 12월 1일).” 『근로자』 제4호(2013).
- 박학남,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일해나가야 한다”. 『근로자』 제11호(2019).
-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정치법률연구』 제2호(2016).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품모에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근로자』 제3호(2012).

3) 기타 자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철해동지 서거 1 뉘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로동신문』, 2023년 5월 20일.

“그 이름도 빛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 『우리민족끼리』, 2022년 5월 1일.

김정은. “2017년 신년사.” 『로동신문』, 2017년 1월 1일.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7월 26일).” 『로동신문』, 2012년 8월 3일.

김정은.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연설. 2013년 1월 29일).”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6~7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회사(2021년 1월 5일).” 『로동신문』, 2021년 1월 6일.

김정은.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김정은위원장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2019년 3월 6일).” 『로동신문』, 2019년 3월 9일.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2014년 2월 25일).”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김철룡. “론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로동신문』, 2021년 2월 13일.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로동신문』, 2020년 6월 2일.

“론설: 우리 당을 인민의 심부름꾼당으로 건설하여야 할 필요성.” 『로동신문』, 2021년 8월 8일.

“론설: 우리의 당기를 존엄과 승리, 전진의 기치로 영원불멸할 것이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6일.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만경대유회장을 돌아보시었다.” 『로동신문』, 2012년 5월 10일.

“사설: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 10일.

승철진.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기풍.” 『로동신문』, 2021년 6월 17일.

“신천군 복옥농장 새집들이 장면.” 『로동신문』, 2026년 1월 30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로동신문』, 2024년 10월 21일.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위업을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3일.

“전국의 로동계급에서 보내는 호소문.” 『로동신문』, 2015년 12월 4일.

“제8차 당대회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2018년 4월 20일).”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창도군 대백농장살림집 입사 기념식 장면.” 『로동신문』, 2026년 1월 28일.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의 근본핵 혁명적수령관.” 『로동신문』, 2021년 7월 8일.

홍진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 『로동신문』, 2020년 6월 12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번스, 제임스 맥그리거(James McGregor Burns).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조중빈 옮김.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서울: 한울엠플러스, 2025.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연구』. 서울: 선인, 2005.

2) 논문

-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의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2019), 309-346.
-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주체, 우리 식, 우리민족제일주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2017), 65-96.
- 김종수·김상범.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국가안보와전략』 제21권 1호(2021), 193-226.
- 박계리. “김정은 시대 문화정치와 통속성.” 『통일과평화』 제15권 2호(2023), 121-152.
- 이경수. “김정은 시기 인민대중제일주의 담론과 정당성 구축.”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2호(2025), 97-116.
- 정영철.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2호(2024), 117-144.
-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의 변화.”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2017), 7-29.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38-73.

3) 기타 자료

- 김일한. “124연대를 아십니까.” 『한국농정신문』, 2026년 2월 3일.
- “김정은 대장 작년에 결혼했다: 북 후계작업 순조롭게 진행, 보통강여관에 대장복 비석.” 『통일뉴스』, 2011년 5월 30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44>.
- “김정은, 中관광객 사망 사고 새벽 위문 방문.” 『통일뉴스』, 2018년 4월 24일.
- “김정은, 평양역에서 ‘유커 시신’ 후송 열차 직접 전송.” 『서울신문』, 2018년 4월 26일.
- “北 폭우로 은파군 제방 붕괴 … 김정은 수해현장 시찰.” KBS 뉴스, 2020년 8월 7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12116>.
-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기술자 4명 총살.” 『연합뉴스』, 2014년 5월 29일.
- 정영철.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21.

“총비서? 위원장? 김정은 직책은 대체 뭔가요?” YTN, 2021년 1월 14일. https://www.ytn.co.kr/_ln/0134_202101141050018925.

3. 국외 자료

1) 논문

Isozaki, Atsuhito. “Characteristics of Kim Jong-un’s leadership: Analyzing the tone of official North Korean medi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9, no. 1 (2020): 50-64.

Humanization of the *Suryong*

The Suryong-gwan (View of the Leader) in the Kim Jong-un Era

Chung, YoungChul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evolving nature of the *Suryong*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transition from deification to the humanization of the *Suryong* in the Kim Jong-un era. Historically, the *Suryong* was established as a sacrosanct, god-like entity that reigned over the populace. However, Kim Jong-un has initiated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is tradition by pursuing a policy of demystification. By stripping away the supernatural aura of the leadership, the regime now emphasizes the leader's *imminseong* (pro-people character) and his proximity to the masses. This shift is deeply rooted in the 'People-First Doctrine', which redefines the leader's role as a "humanized" figure integrated within the collective. This transition from a deified ruler to a relational leader impli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offering critical insights into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North Korean system.

Keywords: *Suryong*, Kim Jong-un, demystification, People-First doctrine, *inminseong* (pro-people character)